시 강대실

## 보리밥 잔치

콩밭에서 갓 뽑은 열무 벼락절이
풋고추 된장 그릇 챙겨 창가에서
아내와 늦은 점심 먹는다

보리밥 꾹꾹 물에 말아 한 술 뜨다가
앞산 자락 낙락한 외솔
그 밑 왕대랑 오라 하고

김치 한 가닥 집어 들다가
산마루 말똥말똥 쳐다보는 하늘
허기져 아우성치는 멧비둘기도 부르고

풋고추에 생된장 쿠-욱 찍어 넣다가
킹킹 칭얼거리는 바람
울 너머로 머리 내민 수숫대도 손짓한다

차린 건 없지만 산동네 이웃이랑
오순도순 두리기상에 모여 앉아
보리밥 잔치 벌인다.

약력

▲'韓國詩' 등단(1996)
▲시집 : '바람의 미아들' 외 3권
광주문인협회, 무등문학회 회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세상 눈뜨기' 수록

시 이여울

## 꽃무릇

태양이 봉인된 기억
환하게 풀어놓아도
첫사랑은 여전히 통증으로 나부낀다

수많은 세월 흘러도
단 한 번도
바라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대

엇갈린 시간 속에서
심장 벤 듯
분절되는 고통 속
붉은 울음 토해낸다

기다림에 운명을 건 인연은
가녀린 목 길게 빼고
가슴 깊이 새긴
임의 모습

한 방향으로만 달려온
보고픔 하나
전하지 못해
멍울진다

꿈꾸듯 범람하는 가을 불꽃에도
영영, 만날 수 없는 그리움
한이 되어
핏빛으로 물든다.

약력

▲아시아서석문학 시 등단, 전문시낭송가, 한국문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시분과부위원장, 낭송분과위원장 역임
▲광주시인협회 부회장, 아시아서석문학회 회장 역임, 고문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광주문인협회 공로상(2회), 광주시문학상, 한용운문학상 외 다수
▲시집 : '걸음걸음 보랏빛' 외 다수

시 공옥동

## 내 나이의 가을

내 마음에 단풍들 날을 기다렸어
그렇듯 몸살을 앓으며 기다린 계절

보타진 살결에 일던 시린 이야기가
시간을 보채며 나를 흔들던 열대야에
갈 길 찾아 헤매다 이룸의 언덕에 선다

이제 가을인가 싶었는데 겨울의 길목에
매서운 한파가 붉게 야위어진 손으로
휑하니 달려와 남겨진 알곡들

가을이 오며 가며 남는 사연
겨울과 애달픔, 꽉 움켜쥔 씨앗 한 줌 들고
또 다른 봄을 기다려야 하는 나

힘겹던 한 해가 남긴 단풍에 뜨락마저 좁다

약력

▲문학예술 등단, 한국문학예술가회 신인상
▲광주문인협회 상임부회장, (사)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창립회장
▲학리공옥동문학공간 이사장
▲문병란문학상 특별상, 광주매일백일장 우수상
▲시집 : '마음이 마음으로 느낄 때', '그리워 차마 지울 수 없는 사연' 외 다수

수필 이민주

## 길을 묻다

공원 숲길을 자주 걷는다. 뜨거운 여름에도 하루에 한두 번씩 숲으로 나온다. 공원은 가까워서 댓잎 그려진 쥘부채 하나면 그만이다.

변함없이 꽃과 나무들이 반긴다. 식물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개운해지고 맑아진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는다. 우거진 나뭇잎들이 청년처럼 푸르고 싱그럽다. 마음마저 젊어진 느낌이다. 걷던 길을 잠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내쉰다. 공원 나무들이 뿜어내는 상큼한 피톤치드가 폐부를 찌른다. 공짜 피톤치드는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더 낫다.

벌써부터 매미가 운다. 매미 소리가 내심 반갑다. 울어야 할 때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기특하기도 하다. 매미의 울음은 여름날의 더위를 날리고 청량감마저 안겨준다. 어떤 사람들은 매미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면서 나무를 올려다보며 '저놈의 매미소리!'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매미의 일생을 알고 보면 참 안쓰럽고 울음에 이해가 간다. 땅속에서 칠여 년이란 긴 세월을 굼뱅이로 보내다가 비로소 밝은 세상에 나와 성충이 된 뒤 매미로 열흘을 살고 생을 마감한다. 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 매미가 되지만 생은 고작 열흘이라니. 그래서 더욱 그악스럽게 울어대는지도 모르겠다. 매미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은 옛날 임금이나 세손들이 매미의 오덕을 상징하는 매미의 날개 익선관(翼善冠)을 썼기 때문이다. 익선관의 한문 뜻은 날개 익(翼) 매미 선(蟬) 갓 관(冠)이다.

진나라 시인이었던 육운은 매미가 오덕(五德)을 지녔다며 칭송을 했다.

"첫째 매미의 입에 붙은 촉수가 곧게 뻗은 모양으로 갓끈 늘어진 것을 연상시켜 이는 학문을 이르고(文), 둘째 맑은 이슬만 먹고살기 때문에 청빈하다는 것이고(淸), 셋째 사람이 먹는 곡식은 손대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는 것이고(廉), 넷째 굳이 집을 짓지 않고 나무 그늘에서 살기 때문에 검소하다는 것이고(儉), 다섯째 철 따라 때맞추어 허물을 벗고 할 도리를 지키는 믿음이 있다(信)는 것이다."

매미의 오덕 文, 淸, 廉, 儉, 信의 의미를 알고 나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새롭게 들린다. 너무나 짧은 생을 슬퍼하며 우는 것 같아 마음이 처량해진다. 매미의 생도 찰나지만 우리 인생도 멀리서 보면 한순간이 아닌가 싶다.

삼십 대에 짧은 생을 마친 언니가 떠오른다. 매미의 오덕까지는 아니라도 나름대로 덕을 갖춘 언니였다. 그렇게 짧게 살 것을 신은 왜 목숨을 주었는지. 언니의 사망 소식을 듣던 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원으로 내달렸다. 밤톨처럼 잘생긴 형부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욕심을 부렸다. 주변 사람의 충고를 새겨들었어야 했다. 애당초 일확천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욕심의 대가는 언니에게 천둥으로 다가와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다. 꽃을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했던 언니의 형벌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다. 언니의 짧은 생은 늘 상처로 남아 있다.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뚝 그쳤다. 공원 숲길을 천천히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이 시리도록 맑다. 그야말로 청잣빛이다. 내가 좋아하는 빛깔이라 기분이 밝아진다. 어렸을 때부터 파란 하늘빛을 좋아했다.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파란색을 칠할 때면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쳤다.

삶은 유한하다. 짧은 인생이다. 그래서 더욱 애틋하다.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한때는 크고 좋은 아파트에 멋진 외제 차를 소유하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다. 출세만이 최고의 삶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나이가 가르치는 것일까? 많은 걸 내려놓으니 이젠 마음이 그윽하고 평화롭다. 매미처럼 검소하면서 문(文)과 가까이하는 삶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청빈하고 맑은 삶에도 충분한 행복이 스며있는 것이다. 이젠 고운 햇살과 한 점 바람에도 행복해질 수 있어서 좋다.

약력

▲'수필과 비평' 신인상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겸 편집위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